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7년 11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22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 22.(수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 한혜원 주무관(044-203-4045)

산업부, 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

-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KTNET, KB국민·신한·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-

- 무보 보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1石5鳥* 효과 기대 -

* ①중소·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, ②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확대 대응, ③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, ④서비스 수출 촉진, ⑤새로운 대출시장 확대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백운규)는 11.22(수)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·중견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로서 **일자리 공급망 금융**을 제공하기 위해 **수출 유관기관**(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)과 **3개 시중은행**(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) 간 **업무협약을 체결**했다.

< 일자리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식 개요 >

- **일시/장소 :** 11.22(수) 15:00~15:20 /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
- **참 석 :** (정부)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
  (유관기관)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,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, 한진현 KTNET 사장
  (시중은행) 허인 KB국민은행장, 위성호 신한은행장, 함영주 KEB하나은행장
- **협약내용 :**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

○ 이 협약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**「일자리 공급망 보증」**은 '18.5.1.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**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**이 납품후 취득한 **국내 매출채권**을 은행에 매각하여 **조기현금화**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.

○ 이번 협약을 통해 **무역보험공사와 3개 은행**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**내부 시스템을 구축, 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**은 매출채권 핵심 서류인 **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-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**를 지원, **무역협회**는 제도 활용을 위한 **업계 홍보**와 **우수 간접수출기업 발굴**을 지원한다.

- 특히, **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**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상호 정보 연계를 통해 **구매확인실적 제공, 금융보증 한도** 및 **납품 공급망 지도** 등을 **전자적으로 관리**하는 시스템을 전자무역기반시설(uTradeHub*)에 구현해 중소·중견기업들에게 간접수출금융의 편리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.

* 전자무역기반시설(uTradeHub : 중소·중견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·금융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무역업무 웹사이트

- 또한, 무역협회는 앞으로 **구매확인서 발급 활성화**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, **업계 설명회**를 통한 수요 확충 등 **공급망 금융 저변을 확대**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<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(안) >



□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도입되면 **간접수출기업, 수출기업, 은행 모두에게 이익**이 될 뿐만 아니라 **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**하고, **서비스 수출도 촉진**하는 **일석오조(一石五鳥)의 효과**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08:41

① **(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)** 동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외에 수출기업(주로 대기업)에 납품하는 **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으로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**한 **최초 사례**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-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·중견기업들은 **납품후 통상 1~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유동성 애로**를 겪어왔으며,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크고 현금성 자산 또는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.

- 하지만 금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·중견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, **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** 받을 수 있어 **자금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**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② **(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연장 대응)** 해외 수입업체가 **외상기간 연장**을 요구(예: 선적후 2개월 → 3개월)할 경우, 수출기업들은 국내 **납품기업에 부담 전가 없이** 원부자재 납품 거래 외상기간을 늘릴 수 있어 바이어 요구에 보다 **유연하게 대응**할 수 있다.

③ **(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)**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는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여 **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**하고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, '22년까지 약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시 **최대 7천여명*의 일자리 창출**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* 「통상 및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」(대외경제硏, '17.10월)의 무역보험 지원에 따른 고용유발계수(10억원당 최대 2.4명)를 통해 산출

④ **(서비스 수출 촉진) 간접수출 보증 대상**에 원부자재 등 **물품 외에 콘텐츠, 소프트웨어(SW) 등 서비스도 포함**해 서비스 수출 촉진을 지원한다.

⑤ **(새로운 대출시장 확대)** 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**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고, 대출 시장을 확대**하여 **새로운 수익을 창출**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□ 협약 참여기관은 **'18.5.1.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** 시점에 맞추어 **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**할 수 있도록 **내년 3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, 내규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**하기로 했다.

*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7.9.28)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함('18.5.1일부터 시행)

○ 향후 6개월간 **무역협회** 등을 통해 수출기업, 납품 중소·중견기업이 동 **보증을 많이 이용**할 수 있도록 **적극 홍보·안내**할 방침이다.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"우리나라 중소·중견기업들의 **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***에 이를 정도로 전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**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**에 있어 왔다"라고 평가하고,

* 「수출의 국내 간접수출 유발 효과 분석」(무역협회, '17.7월)에 따르면 '15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가 82.7조원으로 추정됨

○ "수출 활력을 높이고 **수출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** 수출 원부자재 납품 중소·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

○ 앞으로도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**연계**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**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개발·도입**해 나가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08:41

참고1 일자리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 체결 행사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(목적)** 무보가 **중소·중견기업 유동성 확보**를 위해 '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**「일자리 공급망 보증」**[*] 관련 **기관**[**] **간 업무협약** 체결

*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이 납품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

** **무보**(대금회수 보증), **은행**(매출채권 매입 및 현금화), **KTNET**(매출채권 핵심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), **무역협회**(제도적 기반 조성 등 공급망 금융의 저변 확대)

- 동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외에 수출기업(주로 대기업)에 납품하는 **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으로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**한 **최초 사례**

- 국내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를 통해 **유동성 애로를 해소**함으로써 **중소·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**과 **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

○ **(일시·장소) 11.22(수) 15:00~15:20,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**

○ **(참석)**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,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,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, 한진현 KTNET 사장, 허인 KB국민은행장, 위성호 신한은행장, 함영주 KEB하나은행장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	내 용
15:00~15:10	(10')	▪ 사전 환담
15:10~15:15	(05')	▪ 제도 개요 및 협약 취지 설명 (무보)
15:15~15:20	(05')	▪ 업무협약서 서명 → 기념촬영

참고2 업무협약 개요

□ 개요

○ 협약 당사자 :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정보통신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

○ 협약명 : 「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급망 금융 업무 협약」

○ 체결 목적 : 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각 기관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협업모델 구축

□ 주요 내용

○ 수출용 원·부자재(완제품 포함) 납품거래의 유동화를 위한 신규 보증(가칭 '일자리 공급망 보증') 제도 및 금융상품 개발

○ 신규 보증제도 및 금융상품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협업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

○ 구매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마케팅 실시

○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논의

□ 기대 효과

○ 참여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간접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 지원 체계 구축

- 공급망에 참여하는 공급자, 구매자 및 금융기관을 하나의 전자적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금융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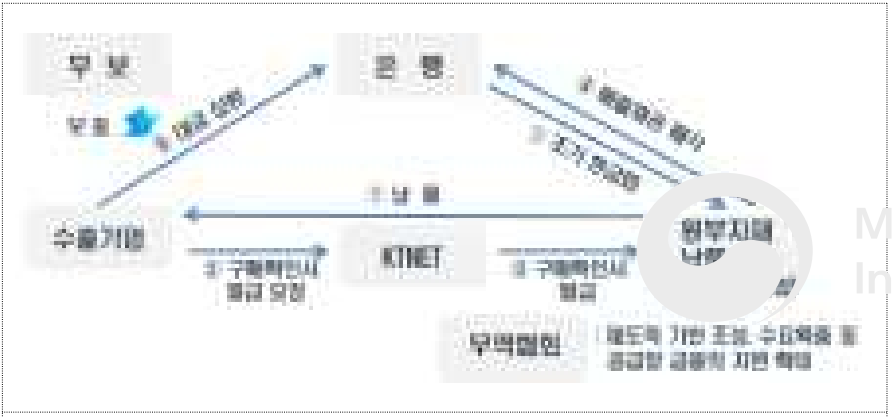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08:41

참고3 「일자리 공급망 보증」 개요

□ 원부자재 납품기업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여 취득한 **채권의 유동화를 지원**

○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취득한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입한 후, 수출기업으로부터 **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** 입게 되는 **손실을 무보가 보상**

< 「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」구조도(안) >



① 원부자재 납품기업이 수출기업에게 물품을 공급
②~③ KTNET은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
④~⑤ 원부자재 납품기업은 은행에게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조기 현금화, 유동성 확보
⑥ 수출기업은 매출채권 만기시(1~2개월후) 은행에게 직접 대금을 상환하되, 미회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보가 보증

* 무역협회는 구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, 업계 설명회를 통한 수요 확충 등 공급망 금융 저변 확대